



연중 시기(Ordinary Time)를 살며

“신부님! 신부님이 안수할 때도 안 그랬는데, 저 자매님이 안수할 때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이번 부활 시기에 열린 본당 성령세미나에 참여했던 분이 며칠 후 저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여러 번 성령세미나에 참여했었으나 한 번도 몸으로 느끼는 현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었다고 이미 말했던 적이 있었기에, ‘잘 되었구나’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일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분들은 저의 안수 때 그러한 체험을 하셨다고 알려주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궁금함은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들의 선택 이야기와 연관하면 상호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마태오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은 이야기를 전하고, 탈출기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제의 나라로 만드시려 이집트에서 데려오신 내용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들 열둘을 뽑으셨을까요? 선택될만한 무슨 특별함이 있었나요?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하느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뽑힌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약한자들이고 변두리 사람들이어도 그들은 하느님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2독서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었다 설명합니다. 오늘의 독서들은 하느님 선택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오랜만에 만난 저의 지인이 우리는 지금 연중 시기(영어로 일상의 시기라는 뜻을 포함)에 들어섰지만 우리 삶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시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많은 갈등과 폭력이 넘치는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일상적이 아닌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는 낮은 것과 낮은 이를 수용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 있었고, 소가 17마리 있었는데, 유산으로 첫째에게 2분의 1, 둘째에게 3분의 1, 셋째에게 9분의 1을 상속하였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첫째 둘째 셋째에게 8마리와 반 마리, 5마리와 3분의 2마리, 1마리와 9분의 8마리로 나누어 주면 될까요? 한 낮은 이가 이야기를 듣고는 소를 한 마리 가져와 선물로 주며 말합니다. “이제 18마리이니 첫째에게 9마리, 둘째에게 6마리, 셋째에게 2마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1마리 남으니 그것은 제가 선물로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한 LA대교구 한인 성당들은 이민자들의 감소로 점차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여러 몫을 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놀라움은 아직도 잠재적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라도 하느님께 불린 이들이 모두 존중받으며, 조금씩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마음껏 봉사하며 사는 교회가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 | 교포사목(미국 LA 성삼)

주일 진례

제 1 독 서

탈출 19,2-6ㄱ

화 답 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제 2 독 서

로마 5,6-11

복 음

마태 9,36-10,8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17

함안지역 교우촌(4)

동박골공소는 타케(Taquet 엄택기) 신부의 1899년 교세통계표에 처음 등장한다. 1899년 보고서는 1898년 6월부터 1899년 5월까지의 사목활동 통계다. 타케 신부는 부산본당 3대 주임으로 1898년 5월 부임했다. 부임 즉시 공소 순방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동박골 방문도 이때 있었다. 물론 공소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다. 교우 집에 머물며 성사를 집행하고 동박골공소로 보고한 것이다.

현재의 동박골 마을은 대신면 장암리長岩里에 속한다. 옛 지명은 장포리長浦里. 포浦는 조수潮水가 스며드는 바닷가를 뜻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예부터 강물이 범람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남강이 낙동강을 만나는 곳이라 낙동강이 불어나도 역류하는 곳이다. 지금은 거대한 비닐하우스 단지가 되어 있다.

동박골 한문 표기는 동백곡洞白谷이다. 동네가 하얗게 된다는 의미다. 옛날엔 아포鵝浦라고도 했다. 강변을 흰 거위가 덮고 있다는 뜻이다. 홍수로 범람한 들판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큰물이 지나고 나면 기름진 땅이 남는다. 피난 교우들은 그런 땅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강 건너 의령군에 속해 있던 성당城堂 덕천德川공소 교우들을 흡수 했을것이다.

18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성당과 덕천지역 공소는 사라지고 동박골공소가 부상하는 이유다. 동박골에선 대신代山 신반新反 함안으로 가는 교통편도 좋았다. 낙동강을 건너면 바로 남지南旨였고 나룻배를 타면 창녕 쪽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함안지역은 가등이, 동박골, 말산, 죽청공소로 재편再編되었다.

말산末山공소는 가야읍에 있었다. 1898년 교세통계표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주임 신부는 부산본당 2대 주임 우도(Oudot 오보록) 신부였다. 우도 신부는 1893년부터 부산본당을 맡았고 1898년 황해도로 이동했다. 그가 처음 함안지역에 왔을 때 논실과 울량공소만 있었다. 앞서 말했듯 당시 공소란 무슨 건물이 덩그렁 하게 있었던 건 아니다. 교우 집 하나를 정해 신부가 교우들을 모이게 하고 성사를 집행하면 공소가 되었던 것이다. 대개는 공소 회장 집을 그렇게 했다.

논실은 대신지역을 대표했고 울량은 가야지역을 대표했다. 우도 신부는 1894년 칠원지역 교우촌도 방문한다. 성사를 집행하곤 죽청공소로 보고했다. 1897년에는 가야읍 교우들을 방문하고 말산공소로 보고했다. 우도 신부는 함안지역을 수차례 방문했다. 하지만 새롭게 방문하고 첫 공소로 보고한 곳은 죽청(1894년) 가등이(1896년) 말산(1897년) 세 곳뿐이다.

그런데 말산공소가 등장하자 울량공소는 교세통계표에서 사라진다. 울량은 말산 가까이 있었던 것 같다. 말산공소가 커지자 울량 교우들을 말산공소로 오게 해서 판공성사를 주었을 것이다. 말산은 아라가야 고분古墳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머리산(頭山)이라 했는데 머리산이 말산이 되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산의 끝자락이기에 말산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말산공소는 이 지역에 있었다.

지금의 함안성당은 도항리道項里에 있다. 도항은 한문 표기한 것이고 원래는 질목(吉木)이라 했다. 말산과 검암檢巖을 연결하는 큰길의 목이었던 것이다. 1900년대 이 지역엔 사람들이 몰린다.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말산공소의 등장은 이 시기와 맞물려 있다. 울량공소는 여항산餘航山 쪽에 있었기에 말산공소에 자리를 내줘야 했던 것이다. 산서리에 있던 논실공소 역시 비슷한 이유로 1900년부터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친교, 모임, 사명

성경 교육봉사자의 일상은 늘 성경과 함께하는 삶의 연속이고, 월 2회 봉사자 모임도 공부와 회의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 봉사자 간의 친교와 나눔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꽃 피는 봄에 봉사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즐거움을 나누고자 야유회를 실시한다.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이날 하루만큼은 공부의 부담을 내려놓고 맘껏 대화하고 웃고 즐기며 하루를 보낸다.

그동안 명례성지, 통영 수목원, 박경리 문학관, 진주 수목원, 사봉성지 등을 다녀왔다.

올해 야유회 장소는 진동 해양 세트장이었다.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며 기다리던 성경 교육봉사자 저녁반의 소풍날은 맑고 화창하였다. 12명의 봉사자와 수녀님이 소풍 장소에서 11시에 만나 파도 소리 들으며 둘레길을 걸었다. 길 중간 지점 팔각정에 둘러앉아 예쁜 꽃밥을 먹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자연과 사람에 취하기에 흥분하였다. 통아저씨 게임과 보물찾기도 일상의 긴장을 해소시키기에 좋은 놀이로 모두를 맘껏 웃게 해 주었다. 과이강의 다리를 건너 부드러운 커피와 함께 나눈 진솔한 대화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

낮반 봉사자들도 역시 진동 해양 세트장이었는데 전날부터 비가 와서 새 교구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12시에 봉사자들이 조별로 모여 간단히 성경잔치 회의를 한 다음, 야유회의 절정인 점심을 먹게 되었다. 임원진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점심과 간식으로 풍성한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우산을 쓰고 교구청 경내를 산책하였다. 평소 소원했던 조원들과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우정을 나누었으며,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가운데 교구청이 옮겨올 수 있음을 모두 감사드렸다.

강당에서 실시한 조별 대항 게임은 주로 머리로 하기보다 몸을 사용하는 게임이다 보니 조별 승부욕도 만만치 않았다. 이기기 위해 기를 쓰는 모습에 많이 웃고 모두 즐거워하였다. 배드민턴 채로 풍선 옮기기, 카드 뒤집기 등의 게임에서도 이기는 것 못지않게 서로 힘을 합하고, 배려해야 하는 단결심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또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긴 조에게 내린 작은 선물을 받는 기쁨도 컸다. 우리는 함께 웃고 응원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야유회를 통해 다져진 봉사자 간의 친교는 따뜻한 공동체,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가는데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보라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시편 133,1)





복음화의 등대가 되어 사회를 비추려 하는 장승포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선교선포식 현수막이 걸린 성당 지붕에는 신자들의 의지가 서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수막에는 선교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신자들의 사인이 빼곡하다. 그와 함께 성전 입구에는 사목위원들의 “선교합시다!”라고 하는 구호가 울린다. 선교조끼를 입은 이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성실히 맞이하며 선교에 동참하자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낸다.

선교, 선교선포식

사목위원회에서는 3월에 선교TF팀을 구성하고 연간계획을 기획했다. 그에 따라 사제에게 요청하여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만들어 매 미사 전에 바친다. 그리고 4월 16일 주일 교중미사에서 선교선포식을 가졌다. 우선 일차적으로 선교대상자를 접수하여 5월 11일 성모님의 밤에서 봉헌하고 5월 마지막 주일에 예비자교리가 시작되었다. 예비신자와 냉담교우 봉헌서는 성전입구에 비치하고, 그 곁에 봉헌함을 두었다. 본당 설립 7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70명을 복음화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목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김화석 도미니코 주임 신부의 사목방향이 깔려 있다. 코로나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던 지난해부터 ‘선교’의 중요성을 세차게 말하고 있다. 복음화와 쉬는 교우들에 대한 재복음화의 시급함이 무엇인지 누누이 되새기게 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3년여 가라앉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임 신부는 선교에 관한 일에는 무엇이든 성의를 다한다. 신자들을 격려하여 기도문을 만들고,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바친다. 쉬는 교우에게 친필편지를 쓰고, 신자들은 애써서 전달한다.



등대가 되어 70년

1953년 11월 29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설립한 장승포본당은 주보성인도 ‘그리스도왕’이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장승포지역 신앙의 등대가 되어 빛을 밝혀 왔다. 대우조선이란 큰 어장이 있어서 그곳에 던진 그물에서 건져 올린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이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장봉근 마리아 사목회장도 그 한 사람이다. 청년시절 여기서 세례를 받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온 식구가 터전으로 삼아 본당의 역사에서 반을 함께한 시간이 감개무량할 뿐이란다. 이필순 아가다 부회장은 이곳으로 전입한 지 40년, 줄곧 제대회에 봉사하며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누렸다. 교육관을 신축하려고 전 신자들이 유자차를 만들고 오징어를 손질하여 말리고 전국의 본당에 팔았던 그때 그 시절도 참 축복의 시간이었던다. 이승준 다니엘 사무장은 장승포 신자들이 심성도 한결같고, 이동도 거의 없어 친밀감이 매우 크다고 한다. 500여 명 신자들의 이름과 세례명을 대부분 외울 수 있을 정도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이 구동성으로 이 공동체에는 친구세대 같거나 토박이와 이주해 온 신자들 간의 갈등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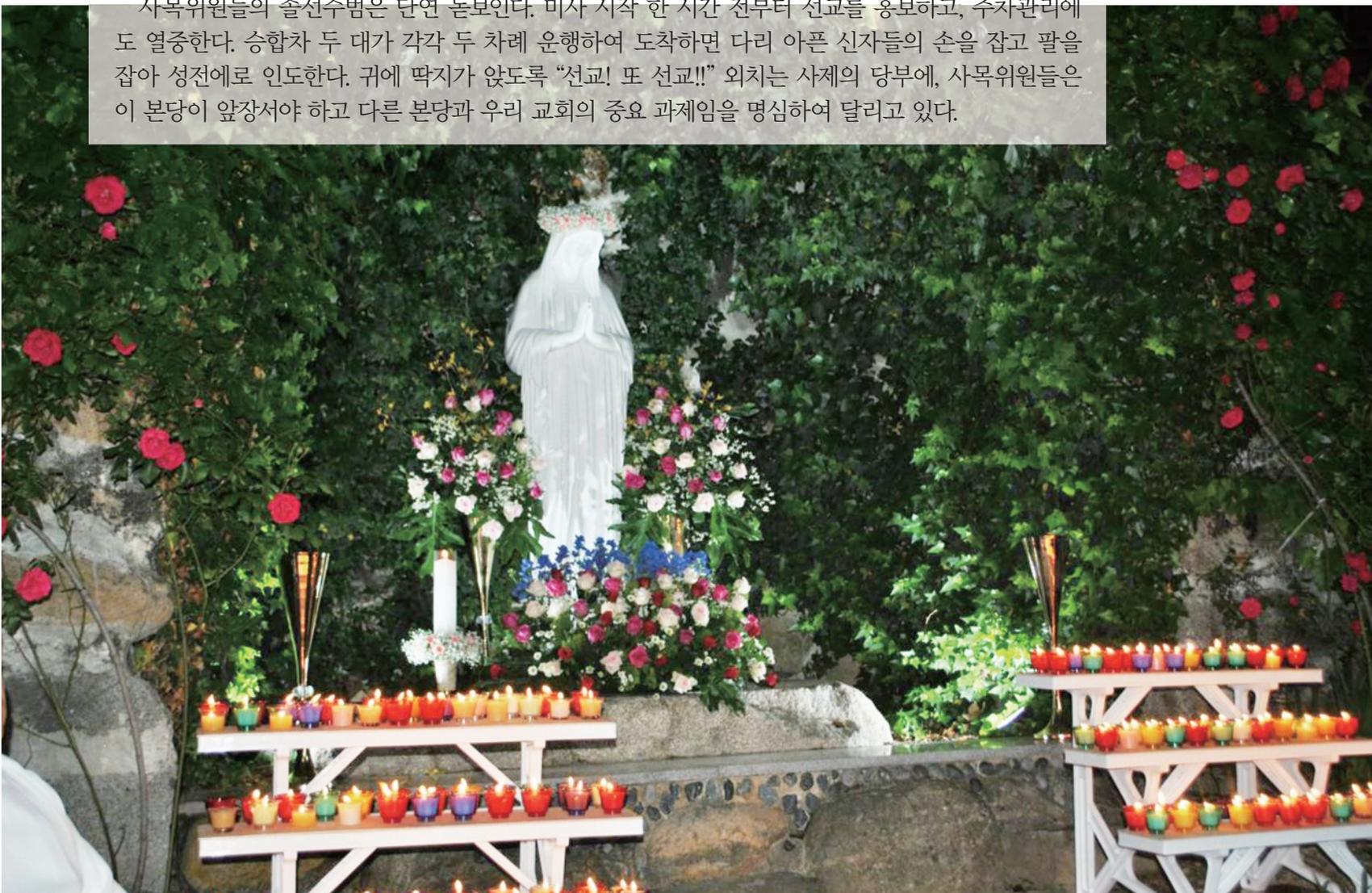
70주년이 된 올해의 가장 큰 사업은 선교이다. 일 년 내내 선교운동을 펼쳐, 현재는 주일날만 하는 예비자교리를 대상자가 많아지면 평일 언제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초청 강연을 두 차례 계획하고 있는데, 1차는 선교 특강이고, 다음은 거제지역 선교역사 특강이다. 올 일 년 좋은 결실을 이루고,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즈음한 본당의 날에는 치명자산으로 전체 신자들의 성지순례를 짜놓고 있다.

이런 사랑 요런 행복

건축한 지 60년이 되었다는 성전은 때때마다 손을 잘 본 덕분인지 밝고 탄탄하다. 특히 성전 좌우 앞뒤에 설치된 모니터 네 개가 부활 시기에 맞춘 디자인과 색상으로 행복함을 자아낸다. 전례 시기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를 주며 성전의 분위기를 바꿔놓는다고 한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랑의 배려석'이다. 미사에 늦은 신자를 위해 맨 끝 두세 줄은 좀 비워두라는 것이다. 늦게 오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사정이 있을 터이고, 허겁지겁 늦게라도 와서 덜 미안하게 앉으라는 배려이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다.

주일학교에서는 지난 성소주일에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한 행사에 다녀왔다. 참가학생 15명에 수도자, 청소년분과장과 교사, 봉사자가 15명 동행하면 거리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비단 이날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봉사자들은 출선수범한다. 주일학교 초등부는 자모회가 있지만, 중고등부에는 독특하게 '자부회'가 활동하고 있다. 아빠들의 사랑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부회에서는 때때로 바비큐도 굽고, 통닭과 티를 열기도 한다. 지난해 신앙학교 때는 성당마당에 다 워터파크처럼 시설을 똑딱 설치하여 아이들 천국을 만들었다. 주일학교는 초등부가 28명에 교사 6명, 중고등부가 22명에 교사 5명이다. 담당 수녀와 교사들이 본당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사목위원들의 출선수범은 단연 돋보인다. 미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선교를 홍보하고, 주차관리에도 열중한다. 승합차 두 대가 각각 두 차례 운행하여 도착하면 다리 아픈 신자들의 손을 잡고 팔을 잡아 성전으로 인도한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선교! 또 선교!!" 외치는 사제의 당부에, 사목위원들은 이 본당이 앞장서야 하고 다른 본당과 우리 교회의 중요 과제임을 명심하여 달리고 있다.



교구장 서리 동정

교구청 신축 사업 결산 보고회

일시: 6월 21일(수) 17:00
장소: 교구청

주경환 신부 군종장교 임관식

일시: 6월 23일(금) 11:00
장소: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신양대학 총동문회 신양강좌

일시: 6월 24일(토) 13:00
장소: 교구청 1층 대회의실

한반도 평화위원미사

일시: 6월 25일(주일) 10:30
장소: 사천성당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6월 2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장례지도사 5차 교육

일시: 6월 23일(금)~25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학생 하계연수

일시: 6월 25일(주일)~27일(화) 2박 3일
장소: 산청 자연한방휴양림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6월 기도모임

일시: 6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폴리

일시: 7월 21일(금)~23일(주일) 2박 3일
장소: 경주 코모도 호텔
주제: '현시대의 매력'
접수: 포콜라레 홈페이지(www.focolare.or.kr)
문의: 포콜라레 010·5890·7051

218차 ME주말 안내

일시: 7월 21일(금) 19:00~23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신청
(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올리나) 010·4598·7530

제236차, 제237차 꾸르실료 참가 신청 안내

일시: 제236차 여성-7월 27일(목) 16:30~30일(주일)
제237차 남성- 8월 3일(목) 16:30~6일(주일)
3박 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영세한지 만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자
▶3박 4일 일정에 자력으로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상태
참가비: 24만 원(참가 당일 접수)
신청: 7월 2일(주일) 21:00까지
문의: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055·249·7113/
Fax. 249·7095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젊은이 하루 피정

일시: 6월 24일(토) 14:00~18:30
장소: 푸른나무교육관 앞집/ 주제: 쉽
대상: 2030 미혼 남녀/ 문의: 010·5794·8380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6월 24일(토) 14:00
장소: 대구프란치스코카눔교육관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일시: 8월 3일(목)~6일(주일) 3박 4일
장소: 수리치골 성모성심의 집
피정비: 38만 원(1인실)/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 한릿타 봉사자 010·8599·3127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일시: 8월 4일~6일, 9월 22일~24일
2박 3일: 시작-(금) 17:00, 마침-(주일) 15:00
장소: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문의: 예수마음선교수녀회 031·321·9054,
010·4154·0885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6월 19일(월) 19:00	중앙동성당	who are you?(당신은 누구십니까?)	이한기 요셉 신부(교구 성사전담 사제)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p>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p> <p>■제주도(추지도) 성지순례 모집 7.3(월)~5(수)/ 7.10(월)~13(목)/ 7.17(월)~19(수)/ 7.24(월)~26(수)</p> <p>■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7.27(목)~30(주일) 원주·춘천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8.3(목)~6(주일) 청주·안동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p> <p>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p>천차만차</p> <p>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p> <p>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p> <p>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p> <p>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p> <p>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p> <p>마르코 투어 010-4239-1929</p> <hr/> <p>가톨릭</p> <p>우리농 직매장</p> <p>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p> <p>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p> <p>055 · 266 · 7010</p>	<p>트래피스트 수녀원</p> <p>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p> <p>·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p>
--	---	---	---

신앙대학 총동문회 신앙강좌

신앙대학 총동문회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신앙강좌를 개최합니다.

일시: 6월 24일(토) 12:40~18:00

장소: 교구청 1층 대회의실

주제: 중세교회사

강사: 신은근 바오로 신부
(교구장 서리)

참가비: 1만 원
(강사비, 간식비 포함)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총동문회장

010-8524-1543,

사목국

055-249-7021~2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일시: 6월 25일(주일) 10:30

장소: 사천성당

미사주례 및 강론: 신은근 바오로 신부
(교구장 서리)

주최: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49-7168



✦ 여인석 베드로 신부 모친 선종

여인석 신부(고현본당 주임)의 모친 김복이(헬레나)님께서 6월 2일(금) 선종하여 6월 5일(월) 사파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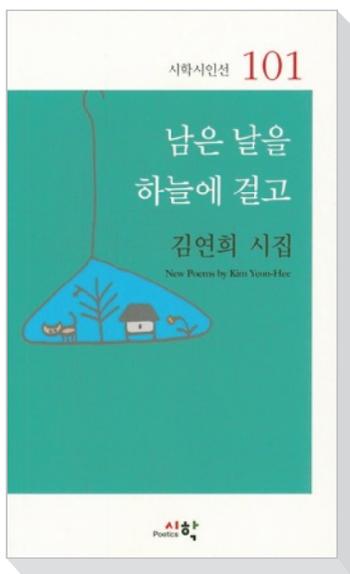
본당 교육분과장 연수 실시



교구 성경사목부(사목국장: 최태준 필립보 신부)는 6월 3일 교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분과장 연수(성경 관련)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장성근 에단 신부(사목국 부국장)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헌 <성경과 도덕>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적 근거'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53명이 참석하였다. 장성근 신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인간의 성경적 관점에 대한 일치와 예수의 모범에 대한 일치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잘 식별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번 연수는 제12회 성경잔치에 대한 준비와 도움을 주는 설명회였다. 2023년 제12회 성경잔치는 공관 복음서를 주제로 11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나의 문학과 신앙의 걸음

김연희 크리스티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나는 의료인으로 일찍이 죽음을 통하여 내 가슴에 하느님을 영접하였다. 직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죽음은 생명을 창조하신 신의 영역임을 깨달은 스무 살 중반이었다. 간호직은 천직이었고 1990년대에 대한간호협회신문 수기, 수필, 시로 문학에 등단이 되었다. 바쁜 직장 탓으로 시작詩作은 어설프게 유지되고 적극적이지도 않아 방관적이기도 했다. 잘 식히거나 다듬지도 못하나 지금까지도 시의 밭에 머물고 있다. 시를 쓰는 순간마다 나의 영혼은 하늘가에 맴돈다. 뼈도 살도 없는 바람 찬 영혼에 꽉 붙어 켜지고 이면의 그늘을 걷는 사유思维는 오롯한 자유의 공간이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치료 약은 없다” 소로우의 말에 보람 있게 적극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세우고 머물며 노력하던 중 2019년 봄, 네 번째 시집 『남은 날을 하늘에 걸고』를 발간했다. 제목만큼이나 순간마다 진지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사색의 몸통보다는 행동의 날개가 되고 싶었다. 더 진한 주님의 사랑 맛을 내고 싶었다. 우주를 향한 노

래는 텃없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하여 시간의 깃을 세운 시는 미련 없이 저 허공에 뿌리리라 다짐하였건만 미련이 소나기같이 몰려와 십 년 만에 네 번째를 주님께 올렸다. 글쓰기는 언어로 그림을 그리거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비유한다. 그것은 선을 지향하고 영혼을 맑게 가꾸는 일이라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걷기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모든 건 주님께서 허락하심이 전제하니 매사 감사함에 숙연하다. 인연을 덧칠하는 연보랏빛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잇는 사랑의 연가로 조용히 노래를 청했다. 늘 마음 가는 곳이 있다.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먼저 듣는 그대의 음성은 먼 나라로부터 날아오는 구원의 손길, 작은 정성을 보태 나누는 콩알 반쪽. 가슴에 흐르는 끝자리의 아픔들을 안고 오늘도 하루 여행을 폐달 굴리며 간다. 숨을 뱉으며 떠난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꽃의 메아리도 찬란하다. 아, 살아있음이며, 하늘과 눈 맞춤이 자유로운 우듬지에 마침내 이 순간도 가슴이 떨린다면 내 삶은 성공이다. 내 영혼의 안식처에 날개를 펼친다.

남은 날을 하늘에 걸고*1

팽이돌이의 세파는 재우고 또 재워야하리//명예의 심장이 전하는 말/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 가리라//진리의 탑을 정수리에 곧추세우고/오직 이 하루를 위한 사랑의 심지로/그대에게 반짝이는 기쁨이 되고파//십이만 킬로미터 혈관을 짊어지고/숨 쉬는 기적과 마술 사이 오렌지 궁전으로/절실한 그대의 위로는 톱아 입기//비우고 낮춘 천 번의 절망에도/축복의 희망을 한 아름 안겨주기/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드리기

남은 날을 하늘에 걸고*2

가슴안 소금물은 시들지 않네//오늘도 반짝 하늘에 닿나보다// 사는 게 하루살이/다람쥐 쳇바퀴 돌기라 하여도/사랑 빛어 묵묵히 가야 할 길//애증의 둘러쓴 언덕의 시간/스쳐 간 흔적에 가벼운 손 인사/겸손한 님의 음성을 밝히리//내일이란 운명은 점점 짧아져/온정의 물 한 잔 성심껏 바치기